

건강기능식품과 GMP

박 종 문

내추럴F&P

건강기능식품은 경제발전과 개인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점점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진 및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의 건강기능식품이 요구되고 있다. 1990년대 건강보조, 특수영양식품의 범위에서 점점 발전하여 2000년대 폭발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건강식품들이 개발, 판매되어 졌다. 국가발전 및 개인의 소득증가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어 졌으며, 이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코자 하는 의욕적인 출발이었다. 이에 부흥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전문제조업체를 통하여 제조하는 것이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, 위생상 및 규격기준을 통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어 대국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공급코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(GMP)의 제조기준을 법령화 하게 되었다. 이는 건강기능식품도 이제는 엄격한 제조기준을 통하여 전문의약품과 같은 특정분야로 전문성을 부여하여 일반식품과 비교되는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.